

산지천 반짝이는 등불따라 탐나는 제주문화

제58회 탐라문화제 어제 개막
닷새동안 탐라문화광장 일대
서귀포시·제주시 축제의 날
제주시청 출발 퍼레이드 확대
43개 읍면동·제외도민 등 참여

제주시 도심 산지천에 삼성신화가 내려앉았다. '자연이 탐나·사람이 탐나·탐나는 제주문화'를 슬로건으로 한글날인 9일 막을 연 제58회 탐라문화제다. 이날 탐라광장 일대에서 펼쳐진 길거리 바다와 땅의 신들에게 축제의 시작을 알린 탐라문화제는 '삼신인'과 '삼공주'가 등장하는 '제주문화 르네상스' 개막 주제 공연으로 닷새에 걸친 '제주 문화 큰잔치'의 빛을 쏘아올렸다.

제주도와 제주예총이 주최하는 이번 탐라문화제는 이달 13일까지 등불이 반짝이는 산지천변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제주어축

제, 칠성로 아케이드 상가 거리페스티벌, 무형문화제 축제, 민속예술 축제, 문화교류 행사, 제주문화 가장 축제, 청소년 문화 행사 등이 잇따른다.

이틀째인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서귀포시 축제의 날이 열려 대정읍 '삼모리 마을회관 낙성 절공', 동홍민속문화보존회의 '홍리 길공', 성읍1리 마을회의 '성읍 1리 장례의식과 행상소리'가 공연된다. 11일에는 같은 시간에 제주시 축제의 날이 개최돼 구좌읍 민속보존회의 '벨방 각시당 영등거리굿', 이호동 민속보존회의 '골앗 답길공', 애월읍 민속보존회의 '가문동 아끈고지 원담 역사', 이도1동 민속보존회의 '모흥골 광양당굿 놀이'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12일 오후 5시30분~8시에는 제주시청에서 탐라문화광장 구간까지 퍼레이드 페스티벌을 확대해 치른다. 기존 제주문화 가장퍼레이드에서 이름을 바꾼 행사로 제주도에 43개 읍면동에서 제주 특산물, 전설, 신화를 아우르는 갖가지 소재로 제작된 콘텐트로 거리



9일 탐라문화제의 막이 올라 제주시 산지천 북수구 광장에서 국악재즈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행진에 나선다. 세계제주인대회에 참가하는 제외도민, 해외 문화교류 행사 출연진들도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폐막 행사는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된다. 제주시립무용단, 제주시연합 풍물패 공연이 끝나면 길공과 민속예술 경연, 가장퍼레이드, 가장퍼포먼스 시상이 이루어지고 제주출신 가수 한서경·김희진의 축하 공연으

로 막이 닫힌다. 부재호 탐라문화제 대외장은 "올해도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도심 축제에 기획했다"며 "일상 속에서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웠던 행사장 내 문화명소들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공간적 특성을 살린 축제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의 064) 725-3287, 753-3287. 전선희기자

시(詩)로 읽는 4:3 (29)

미친 사랑의 노래 5

김순이

내 아버지 누이
미쳐서 죽었다
4·3사태 피해서 일본 간 지아비
찾아서 밀항선 타고 들락거리다가
사랑의 그리움에 침몰해 버렸다
어떤 의사도 건져내지 못하였다
격정의 소용돌이 속의 그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지은 옷
한 벌

보따리에 싸안고 부다가 서성이며
날마다 날마다 마른 가지로 여
위어
새가말게 타죽었다 그리움의 불
길에
풀조차 듣지 않는 그 무덤에서
들려온다
죽어서도 부르는 미친 사랑의
노랫소리

사랑은 가장 따뜻한,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이다. 가슴을 가진 사람, 그 리고 영성(靈性)을 갖춘 사람이 서로 유대 또는 사랑을 갖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곧 사랑이다. 그렇다면 미친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내 아버지 누이 미쳐서 죽었다" 어찌 미쳐서 죽었을까? 사랑이 왜 미칠 수밖에 없었을까? 사랑의 담론에서는 철학, 심리학, 종교론, 윤리학, 예술론, 심지어 정치론까지 망라되어야 한다. 사랑은 한국 문화와 사회와 인간관계에 두루 걸쳐서 이야기되어 마땅하다. 사랑은 진과 선과 미를 두루 감싸고 있는 인간 심성이면서 현실적 효용성을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누이'는 바로 열정의 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미쳐버렸다. 내 아버지 누이가 부르는 '미친 사랑의 노랫소리'는 위대한 미침을 향한 역사적 부름이다. 저 참혹한 역사가 역사를 부르라 말한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사회가 전쟁을

기록할 때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Svetlana Alexievich)가 펴낸 유명 저서의 제목이다. 제주도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을 자행한 토벌군들은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수많은 폭력과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성폭행, 여성고문, 대살(代殺, 남편이 도피한 상황에서 아내를 대신 죽이는 행위), 강제결혼 등은 4·3 당시 여성들에게 행해진 특수한 폭력들이다. 서북청년단원들이 여성들을 흔히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윤간한 뒤 질 안에 수류탄을 집어넣어 폭발시켰다. 토벌군은 가족, 약혼자, 배우자 남성들의 목숨을 빌미로 여성들과 강제결혼을 하기도 했다. 4·3사건은 30여 만 명의 도민이 연루된 가운데 2만5000~3만 명의 학살 피해자를 낳았다.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최재령의 '회화적인 삶'.

자연의 내밀한 얼굴... 일상이 빛나는 순간

화가 박준석·최재령 부부전
이달 18일까지 갤러리비오톱

제주살이 4년째인 부부 화가 박준석·최재령씨. 그들이 다른 듯 닮은 작품들로 부부전을 열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 갤러리비오톱에서 펼치고

있는 'JRJS' 전이다. 두 사람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따서 제목을 붙였다. 이번 전시는 각자 작품 활동과 삶을 이어가기에 바빴던 두 작가가 작업실을 공유하면서 처음 마련한 부부전이다.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지를 대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고 제작 방법에서 접점을 찾게 되었다.

박준석 작가는 재현을 넘어 자연의 개념과 의미를 담아내려 했다. 나무를 관찰해 속성을 파헤쳤고 부분의 모습을 연결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했다. 최재령 작가는 영상 이미지나 영화와 같은 장면들의 움직임의 연결해 거기에 바빴던 두 작가가 작업실을 공유하면서 처음 마련한 부부전이다.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지를 대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고 제작 방법에서 접점을 찾게 되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쫓겨

양상블 테어토니카 공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단원 등으로 구성된 양상블 테어토니카의 제3회 정기연주회가 10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제주교향악단 정인혁 상임지휘자의 해설로 진행되는 연주회에서는 로시니의 '스트링 소나타 제2번', 하이든의 현악4중주 '기사', 도흐나니의 '피아노6중주'를 들려준다. 호르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석준 교수, 비올리스트 추계예술대 서수민 교수, 제주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문화영 등이 초청 연주자로 참여한다.

본태박물관 자선바자회

본태박물관(관장 김선희)은 개관 7주년을 기념해 이달 12일 제주지역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바자회를 연다.

앞서 9월 26~28일 서울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던 본태박물관은 이번엔 본태박물관 아카데미 회원을 중심으로 직접 담긴 맹유자차, 마늘장아찌, 전복젓갈을 비롯 제주도 정장떡거리, 가방, 스카프 등을 판매한다. 행사 수익금은 제주 소아암 어린이 환자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의 064)792-8108.

산지서회 여덟번째 회원전

날마다 붓을 들어 삶을 성찰하고 나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을 서예전을 펼친다. 이달 12~17일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열리는 제8회 산지서회전이다.

산지서회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버거움, 은퇴 후의 쓸쓸함을 막향으로 달래는 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6명이 한문, 전서, 예서, 행서체 등 40여 점을 선보인다. 지도를 맡은 오장순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도 찬조출품한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

제주인대회 화합의 밤

제일 한국인 음악가 양방언과 함께하는 2019세계제주인대회 화합의 밤이 이달 13일 오후 5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무료로 펼쳐진다.

아버지의 고향이 제주인 양방언은 세계제주인대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메조소프라노 김지선과 호흡을 맞춰 제주에 대한 애찬을 음악으로 표현한 '프린스 오브 제주'를 편곡해 들려주고 '아리랑 로드-디아스포라 로스트 아리랑 2019'를 초연한다.

제주 동네서점 이색 낭독극·초청 강연

제주 동네서점들이 유명 작가와 만나는 가을 인문학 행사를 잇따라 연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북카페 겸 서점 책자극(구좌읍 종달로 1길 117)은 '인문학콘서트-생각의 길을 묻다' 첫 번째 행사로 이달 17일 오후 7시 발로 뛰는 실천적 지식인 홍세화(장발장은 행장)씨 초청 강연을 펼친다.

이날 홍씨는 자신의 저서 '생각의 좌표'를 매개로 생각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주 독자와 나눈다. 참가 신청 연락처

010-3701-1989.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무명서점은 봄날의책 출판사와 공동으로 이달 19일 오후 3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에서 배수아 작가의 낭독극을 선보인다.

번역가이자 소설가인 배수아 작가는 이날 특유의 음성으로 브라질의 위대한 작가로 꼽히는 클라리시 리스펙토르(1920~1977)의 단편 '달걀과 닭' 전문을 영상과 결합한 공연으로 낭독한다. 문의 010-6390-3136. 전선희기자

世界唯一城山中

제3회 성산중학교 총동창회 한마음대회

한마음대회에 동창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개회식 10:00
- 장소: 성산중학교운동장

- 식전행사: (09:30) 재학생공연(난타공연)
- 식후행사: (10:30) - 재학생 공연: 유도시범, 댄스 공연, 밴드 공연
- 특별 공연: 평택 농악팀(무형 문화재) 공연
- 행사내용: 일반경기 - 여자승부차기, 홀라후프튬기, 2인3각 계수, OX퀴즈, 장맛놀이, 줄다리기, 족구(1세트)
- * 주차장 안내: 모교, 성산읍사무소, 성산일출봉농협, 교정리사무소

▶ 고문 및 자문위원 ◀

| | | | |
|------|----------|------|----------|
| 고문 | 문오만(2기) | 자문위원 | 송복형(17기) |
| | 현춘홍(3기) | | 강종희(17기) |
| | 이오생(6기) | | 정승준(17기) |
| | 임영준(8기) | | 고주영(18기) |
| 자문위원 | 김옥준(11기) | | 정성준(19기) |
| | 김옥원(11기) | | 김영자(19기) |
| | 오홍원(12기) | | 김창윤(19기) |
| | 강정협(12기) | | 박명호(20기) |
| | 현수찬(13기) | | 오경호(20기) |
| | 윤태군(14기) | | 현중환(21기) |
| | 부희전(14기) | | 강희찬(21기) |
| | 오익심(15기) | | 정순일(21기) |
| | 정성생(16기) | | |

▶ 대회운영위원 ▶

| | | | |
|-------|----------|------|------------------------------|
| 대회장 | 현용행(17기) | 준비위원 | 양홍식, 정문후, 강병도, 김병태, 강영범, 강정환 |
| 직전회장 | 오태곤 | 여성위원 | 고이순, 오준희, 오영숙, 한숙영, 김미정 |
| 수석부회장 | 고관범 | 교육위원 | 정경자, 강재길, 정대열, 이정성, 오복숙 |
| 총무부회장 | 고경석 | 체육위원 | 박명중, 정영수, 한숙희, 현승민, 부윤관 |
| 여성부회장 | 오은숙 | 조직위원 | 김두오, 김홍범, 강미영, 김규성 |
| 교육부회장 | 채철성 | 정책위원 | 김근호, 김동원, 허승길, 현경수 |
| 체육부회장 | 오태길 | 문화위원 | 김태석, 한달환, 김정범, 강창호 |
| 조직부회장 | 김희현 | 재정위원 | 홍지희, 정민권, 현창열, 김태성 |
| 정책부회장 | 김창수 | 홍보위원 | 강주호, 강권익, 위영석, 부현일 |
| 문화부회장 | 조동근 | | |
| 재정부회장 | 정영미 | | |
| 홍보부회장 | 오윤홍 | | |

▶ 기별회장 ▶

| | | | | | |
|-----|-----|-----|-----|-----|-----|
| 22기 | 강달수 | 31기 | 현충훈 | 41기 | 정용홍 |
| 23기 | 강응두 | 32기 | 이정석 | 43기 | 송운진 |
| 24기 | 고경석 | 33기 | 홍근협 | 44기 | 고경민 |
| 25기 | 김병천 | 34기 | 오봉식 | 45기 | 강진철 |
| 26기 | 강태연 | 35기 | 김경범 | 46기 | 김성인 |
| 27기 | 허창훈 | 36기 | 정희석 | 50기 | 강동혁 |
| 28기 | 현승선 | 37기 | 정민 | 51기 | 현우준 |
| 29기 | 정재의 | 38기 | 강규철 | 54기 | 강동진 |
| 30기 | 현경현 | 40기 | 정종근 | | |

▶ 팀구성(10개팀) ▶

| | |
|--------|------------------------------|
| 일출봉팀 | 1회, 11회, 21회, 31회, 41회, 51회 |
| 섬지코지팀 | 2회, 12회, 22회, 32회, 42회, 52회 |
| 대수산봉팀 | 3회, 13회, 23회, 33회, 43회, 53회 |
| 광치기팀 | 4회, 14회, 24회, 34회, 44회, 54회 |
| 두산봉팀 | 5회, 15회, 25회, 35회, 45회, 55회 |
| 식산봉팀 | 6회, 16회, 26회, 36회, 46회, 56회 |
| 대왕산팀 | 7회, 17회, 27회, 37회, 47회, 57회 |
| 혼인지팀 | 8회, 18회, 28회, 38회, 48회, 58회 |
| 국화팀 | 9회, 19회, 29회, 39회, 49회, 59회 |
| 모구리오름팀 |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60회 |

성산중학교총동창회 회장 현용행

연락처: 회장 현용행(010-4508-4187) / 집행위원장 고관범(010-2698-4354) / 준비위원장 고경석(010-3690-7887) / 재정부장 정민권(010-2690-6589)